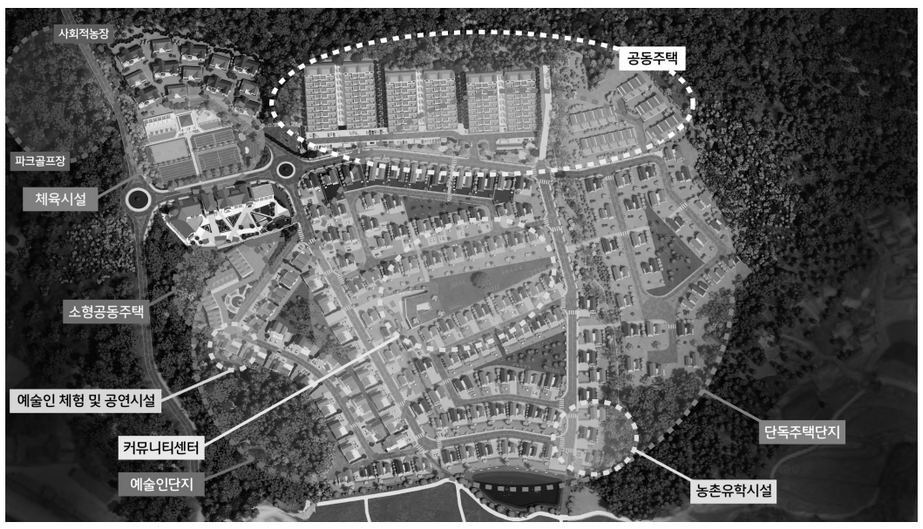
담양에 지방 소멸 대응 '지역활력타운'

국토부 공모 사업 최종 선정
1267억 투입 26만㎡ 규모 조성
귀농·귀촌 500세대 주거단지
농촌유학시설·예술인 단지 들어서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령타운 배치도.

담양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담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한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26만㎡ 규모로의 민관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1140억 등 총사업비 1267억원이 투입된다.

귀농 및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 대상으로 500세대의 주거단지와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 시설, 체육 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에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주민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은 광주시와 20분 거리로 의료, 금융, 대형마트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쉼과 여유가 필요한 장년층의 이전 및 정착을 통해 친환경 전원마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양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평가 등 3회의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덕 매산 지역활력타운'이 군에서 적극 추진 중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일자리 연계형 생활인구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명품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고흥군, 스마트 원격검침·요금시스템 구축

7월부터 무인자동검침 시행

고흥군이 7월부터 상수도를 사용하는 관내 6118개 수용가에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요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은 상수도관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수기검침하던 것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무인자동검침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용가별 수돗물 사용 패턴, 시간대별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확한 검침이 가능한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관리함으로써 옥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처리해왔던 수용가 명의 변경, 요금 자동이체 신청 처리를 각 읍면에서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군은 새롭게 바뀐 상수도 검침 및 요금 시스템 적용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16개 읍면 상수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검침 및 요금관리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7월부터는 고흥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수용가가 직접 상수도 요금을 확인, 전출 시 수도요금 정산, 요금 자동이체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개선되면 방문검침으로 인한 대면 접촉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검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진도전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역 청소년을 진료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작

진도전남병원에 소아청소년 병동

진도군이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는 진도전남병원 1층에서 진행된다. 0~18세라면 전문의 진료와 처치, 영·유아 건강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남우의료재단 진도전남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진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 주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목포와 해남 등지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진도군은 다음 달부터 10여 명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입원실과 소아청소년 병동을 함께 운영한다. 병동에는 전문 간호사와 진료 장비를 갖췄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소아청소년과 개설로 지역의 아동·청소년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진도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신문·짜장면 32년 배달기사 등 올해의 '한 우물패' 수상

장흥 귀족호도박물관
2021년부터 10명 시상

김재원(맨 왼쪽) 장흥 귀족호도박물관장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가전제품 수리 장인(가운데)에게 '한 우물패'를 시상하고 있다.

장흥 귀족호도박물관이 3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장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한 우물패'에 대한 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 우물패 시상은 지난 2021년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수상자 10명을 뽑았다.

올해는 34년 동안 광주일보를 배달해온 지역민에게 '새소식 알림이'라는 이름의 장인상을 지난달 시상했다.

또 32년 경력 짜장면 배달기사와 가전제품 수리 전문가 등 3명이 올해 한 우물패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격려금 20만원, 50만원 상당 귀족호도가 주어졌다.

시상 첫해에는 65년 이상 전통 조청을 생산한 대덕읍 주민과 63년 경력 이용사, 42년 삼합 요리 전문가, 35년 개인 택시기사, 32년 대나무발 장인 등 5명이 받았다. 지난해에는 50년 경력 미용사와 지역 5일장을 찾아다니며 분무기를 수리하는 장인 2명이 수상했다.

김재원 귀족호도박물관장은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장인의 뜻을 기리고자 '한우물회'를 발족했다"며 "앞으로도 한 우물인을 발굴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해남군, 전국 최초 캠핑카 시티투어 운영

해남군이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 여행상품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캠핑카를 대여해 지정 관광지를 여행하고,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여행상품이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이을 프로젝트'에 선정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7천만원을 확보했다.

KTX 목포역에서 로디 캠핑카를 1일 4만원에 대여할 수 있으며,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황토나라테마촌·땅끝오토캠핑장 등 야영장 3곳의 전용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디 캠핑카는 기아차 레이를 캠핑카 형태로 만든 자동차로 2인승이다.

취사용품 세트나 캠핑의자 및 테이블 등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했다.

시티투어는 오는 7일부터 개시하며, 카카오톡 채널에서 '꿈카' 또는 아이디 'kkumka'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예약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